

창의적·비창의적 성향에 관한 한국, 중국, 일본인의 암묵적 이론연구 -ACL-CPS(Adjective Check List-Creative Personality Scale)를 사용하여-*

최인수(崔仁秀)**

전요한(全堯漢)***

표정민(表暉玟)****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이론을 사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에서 ACL-CPS의 외적 타당도를 확인하고 ACL-CPS를 구성하는 두 요소인 창의적·비창의적 성향에 관한 한국·중국·일본인의 암묵적 이론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암묵적 이론연구방법을 이용해서 ACL-CPS를 한국, 중국,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즉 외적타당도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ACL-CPS를 사용하여 창의적·비창의적 성향에 관한 한국, 중국, 일본인의 암묵적 이론을 살펴본 결과, 미국인들에게는 창의적 성향으로 인식되는 '자화자찬', '개인주의적', '심사숙고 하는', '매력적인', '속물의'와 같은 성향은 한국, 중국, 일본인들에게 비창의적 성향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비창의적으로 인식하는 성향들은 한·중·일에서도 역시 비창의적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한·중·일 삼국의 암묵적 이론에서도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한국인은 지적인 성향을 비창의적 성향으로 인식하는 반면 중국은 창의적 성향으로 지각하였다. '유머감이 있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 이 두 가지 특성은 일본에서만 창의적 성향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국에서 개발된 ACL-CPS과 같은 창의적 특성검사를 동아시아에서 그대로 사용할 때 타당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과 아울러 서구학자에게 한자를 공유하는 유사한 문화권이라고 인식되어왔던 한국, 중국, 일본 삼국에서도 창의적 특성에 관한 암묵적지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어 : 창의적 성향, 비창의적 성향, 암묵적 이론, 비교문화연구, ACL-CPS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7-B00567)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인재개발학과 교수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인재개발학과 석사

**** 성균관대학교 인재개발학과 박사수로

I. 서론

창의성은 국가적 측면에서는 창조적 결과물을 산출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창조적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최인수, 1998a, 1998b). 이러한 관심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경제라는 두 개의 중요한 분야에서 창의·인성교육(문용린, 최인수, 2010)과 창조경제(최공필, 2013)라는 정책적 슬로건으로 표출되고 있다.

창의성은 접근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던 주제는 창의적인물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Amabile, 1994; Barron, 1963). 창의적인 인물의 성격적 특성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백인백색의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창의성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한 선구자 Guilford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창의성의 특성을 전통적인 지능개념과의 관련성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창의적 인물의 특징은 인지능력위주로 탐구되었다(유경훈, 2009; 최인수, 이현주, 이화선, 2005). 따라서 창의적인물의 성향(traits)적 특성이나 동기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나 최근 들어 부각되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들어 등장하기 시작한 창의성의 통합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중 대표적인 모델이 체계모델인데(Csikszentmihalyi, 1996; 최인수, 1998a), 이에 따르면 개인의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전문가들이나 대중들의 평가와 선택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각 사회문화권에서 창의적 인물의 특성에 대한 암묵적 견해는 상대적으로 다를 수뿐이 없기 때문에(Csikszentmihalyi, 1990) 창의적 인물에 대한 평가기준도 각 문화권마다 다를 수뿐이 없다는 논리적 함의를 갖게 된다. 따라서 창의적 인물을 측정하는 도구도 각 문화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해 진다(최인수, 2000, 2011).

문화에 따른 심리적 구성개념을 비교하는 방법 중 창의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암묵적 이론연구방법이다(최인수, 1998b; 최인수, 임미정, 표정민, 2011; Runco, Johnson, Bear, 1993; Sternberg, 1985). 암묵적 이론연구방법이 선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체계모델은 창의적 성취를 위해 그 분야와 영역에서의 평가와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그 평가기준은 그 사회문화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마련이다(최인수, 1998b, 2011; Csikszentmihalyi, 1988). 암묵적 개념이란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생성이 되어 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각 사회문화적 평가기준을 조사하기에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Sternberg, 1985; Runco et al., 1993; Csikszentmihalyi 1988, 1990a; Davis, 1998에서 재인용).

둘째, 암묵적 이론이 성향척도의 생태학적 타당도(ecological validity)¹⁾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최인수 2000; Sternberg, 1985).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창의성 연구에 있어서 서양의 창의적 성향척도의 외적 타당도를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연구결과의 타당성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최인수, 2000). 미국에서도 외국에서 개발된 검사 도구를 암묵적 이론을 통하여 수정·보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Runco, 1984, 1989; Runco, Johnson & Baer, 1993에서 재인용). Puccio와 Chimento(2001)는 기업혁신풍토를 측정하기위해 많이 활용되는 Kirton의 적응자-혁신자(Kirton-Adaptor-Innovator: 이하KAI)척도를 암묵적 이론을 바탕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렇듯 암묵적 이론연구 방법을 통한 창의적 성향에 관한 연구는 그 필요성이 증가한 만큼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이론 방법을 통해 창의적 특성뿐만 아니라 비창의적 특성을 동시에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는데, 왜 이 연구가 필요한가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창의성 교육에의 도움이다(성은현 외, 2007). 지금까지 창의성개발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알려진 특성들의 대부분은 외국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특성이 한국에서의 창의적 성취에 도움 또는 방해가 될 것이라는 외적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물론 서양에서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던 많은 특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창의적 성취를 이룬 인물들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Choe, 2006). 그러나 창의적 성취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특성 즉 비창의적 특성이 한국에서도 같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지지되는 창의적 특성은 개발하고 그렇지 못한 특성은 지양하도록 하는 창의성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문화권에 적합한 창의적 성향척도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암묵적 이론은 척도의 요인구조 탐색에 사용되어지며(Schneider, 1973, Passini, Norman, 1966) 요인수준(Cronbach, 1955; Rush, Thomas, Lord, 1977에서 재인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암묵적 이론을 통해 탐색된 창의적 성향은 척도 개발 시에 정적문항으로 포함 시키고, 비창의적 성향은 역문항으로 만들거나 문항점수를 감하여, 한국, 중국, 일본 각 나라에 적합한 창의적 성향척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Sternberg(1985)의 선구적 연구이후 암묵적 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창의성에 관한 많은 비교문화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그 연구들의 대부분은 동양과 서양과의 비교였다(성은현, 류형선, 해주현, 이정규, 한순미, 한윤영, 2007; Rudowicz, 2003, Rudowicz & Hui, 1997). 이 비교연구의

1) 김영석(1999) 참조. 생태학적 타당도는 척도나 연구결과가 다른 상황이나 문화에서도 일반화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중 의 하나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타당도와 외적타당도를 유사개념으로 쓰고자 한다.

두 가지 큰 문제점은 첫째, 동양의 문화는 국가나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국가(대표적인 곳: 인도)를 동양을 대표하는 나라로 취급하던지, 둘째, 한국, 중국, 일본을 한자를 공유하는 유사한 단일 문화권으로 간주하여 왔다는 점이다(Markus & Kitayama, 1991).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중국, 일본이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문화로 간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시작되고(Hofstede, 2001)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최인수, 임미정, 표정민, 2011; 최인수, 윤지윤, 2013). 이처럼 지금까지 서구의 학자들에게 동일한 문화권으로 인식되어진 한국, 중국, 일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동시에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는 것이(성은현과 한윤영(2011)),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Gough(1979)의 창의적 성향 척도(Adjective Check List-Creative Personality Scale: 이하 ACL-CPS²⁾)를 사용하고자 한다. ACL-CPS를 사용하는 이유는 ACL-CPS가 창의적·비창의적 성향을 포함한 척도이며, ACL-CPS를 사용한 이전 연구(이정은, 2000; 정은이 2002b; 최인수, 윤지윤, 2013)에서 이 척도의 외적타당도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암묵적 이론연구방법을 통해서 ACL-CPS의 외적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제작되어진 형식인 2분형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물론 한국에서의 이전 연구들(김영우, 2009; 이정은, 2000)에서는 2분형 척도로 구성된 ACL-CPS를 5점, 7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기도 한바 있다.

창의성연구에서 자기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척도를 사용할 경우, 그 문화권의 창의성이 다른 문화권과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Leung, Au, Leung, 2004). 이런 이유로 ACL-CPS는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창의적 성향과 비창의적 성향에 관한 암묵적 이론을 비교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개발된 ACL-CPS의 2요인 구조, 즉 창의적성향요인과 비창의적 성향요인 구조는 한국, 중국, 일본에 적합한가?

둘째, ACL-CPS의 문항에서 창의적 성향과 비창의적 성향문항들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동일하게 인식되어지는가?

2) Gough의 창의적 성향척도를 CPS라는 약자를 많이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 ACL-CPS라는 약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총 3가지가 있다. 첫째는 CPS라는 약자는 창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과 혼돈을 줄 수 있다. 둘째는 국내에서 이미 하주현의 창의적 성향척도가 CPS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척도는 Gough와 Heilbrun이 개발한 형용사 체크리스트(Adjective Check List: 이하 ACL)에 포함된 척도이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창의적 성향에 관한 암묵적 이론 선행연구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ies)이란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생성이 되어 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진 생각이며,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념을 의미한다(Sternberg, 1985; 최인수, 1998b에서 재인용). 반면에, 명시적 이론(explicit theories)이란, 심리학자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창의성에 관한 자신의 가설을 경험적 연구로 입증한 이론이다(Nonaka, 1994).

암묵적 이론은 직·간접적으로 후세와 타인에게 교육되어지고 명시적 이론의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개인이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암묵적 이론이 관여를 한다(성은현, 한순미, 하주현, 이정규, 류형선, 한운영, 박병기, 2008; 최인수 등, 2011; Runco, 1990).

암묵적 이론은 크게 네가지 방법으로 연구된다(김민희, 2010). 첫 번째는 연구주제가 되는 심리적 구인을 가진 사람의 특성을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다(성은현 외, 2007; Choe, 2006; Sternberg, 1985). 두 번째는 심리적 구인을 가진 사람을 지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Yue, & Rudowicz, 2002; Yue, Bender, Cheung, 2011). 세 번째는 심리적 구인을 가진 사람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일반인이 평정하는 것이다(최인수 등, 2011; 하주현 외, 2008; Runco et al., 1993; Runco & Johnson, 2002). 마지막으로, 녹화된 사람들이나 혹은 시나리오에 나타난 인물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는 것이다(Lim, W., Plucker, J. A., & Im, K. H. 2002; Sternberg, 1985).

이러한 방법 중에서 국외의 척도에 대한 외적 타당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어지는 방법은 세 번째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이기도 하다.

암묵적 이론을 이용하여 창의적 성향에 관한 국가 간 비교한 연구들은 동양과 서양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Yue 등(2011)의 연구를 보면 서양은 자기표현과 개인주의적 성향, 그리고 미적 가치(aesthetic salience)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반면 동양은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가와 같은 공적 가치(meritorious salience)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양은 예술가와 음악가와 시인을 창의적 인물로 인식하는 반면(Leung et al., 2004; Weiner, 2000)에 동양은 과학자나 정치가를 창의적 인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Yue, & Rudowicz, 2002; Yue, 2003, 2004). 성은현과 그 외 동료들(2007)은 한국인과 미국인의 창의적 특성을 유사한 부분과 각자의 고유한 부분으로 구분하였는데 미국은 개인주의에 초점을 둔 창의성을 생각하지만, 한국은 '애국심'과 같이 국가라는 집단에 초점을 둔 창의성을 생각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다.

최인수 등(2011)은 성인을 대상으로 Csikszentmihalyi(1996)가 이야기한 창의적 복잡성

(complexity)에 대한 한·중·일의 암묵적 이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겸손과 자부심'과 '장난기와 진지함', '피와 천진함'과 같은 창의적 인물의 복합성을 한국과 일본은 인정하는 반면에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렇듯 유사한 문화권으로 인식되어져왔던 한·중·일 삼국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단순히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이의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창의성의 문화적 속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Gough의 창의적 성향척도(Adjective Check List-Creative Personality Scale: ACL-CPS)

Gough와 Heilbrun은 1950년 초에 IPAR(the Institute of Personality Assessment and Research)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 문항에 Block의 California Q-Set의 100개 문항을 포함시켜 약 125개의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그 후 Cattell이 제시한 125개의 성향관련 형용사문항들과 Freud, Jung, Mead와 Murray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형용사문항들이 추가되었다(Gough, & Heilbrun, 1965).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52년에 지금 사용되어지는 30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형용사체크리스트로 발전되었다. 이 ACL에 ACL-CPS가 포함되어 있다.

Gough의 ACL-CPS는 ACL의 주제별 척도(topical scales)에 포함된 하위척도 중 창의적 성향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검사이다(Gough, Heilbrun, 1983). ACL-CPS의 문항은 총 30개로서 18개의 창의적 성향문항(indicative items)과 12개의 비창의적 성향문항(contraindicative items)으로 구성되었다.

ACL-CPS의 30개 문항이 선별된 과정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된 창의성 점수와 ACL의 문항 간의 상관을 통해서이다. 창의적 성향문항들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된 창의성 점수와 정적상관을 나타낸 문항들이고, 비창의적 성향문항들은 창의성 점수와 부적상관을 나타낸 문항들이다.

그렇게 30개의 문항들을 구성한 후에 준거관련 타당도 중에서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위해서, Block(1961)의 California Q-Set, Welsh(1977)의 A-1, A-2, A-3, A-4척도, Domino(1974)와 Schaefer(1973)에 만든 창의성 척도들과 ACL-CPS의 총점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뢰계수는 .73-.81이며 준거관련 타당도는 .68-.74($p < .01$)였다.

ACL-CPS는 자기보고식 형태의 검사로 자신을 잘 나타내는 형용사에 표시를 하는 방식이다. 채점은 표시된 형용사가 창의적 성향문항이면 1점을 부여하고 비창의적 성향문항이면 1점을 감점한다(Gough, 1979). ACL-CPS의 총점의 범위는 -12점에서 18점까지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ACL-CPS를 구성하는 두 요소인 창의적·비창의적 성향에 관한 한국, 중국, 일본의 암묵적 이론을 알아보기 위해 각국에 거주하는 10대에서 50대까지의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게 자기 나라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물을 적게 한 후, Gough(1979)의 ACL-CPS의 30개 문항들 중에서 그 창의적 인물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에 표시하게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의 대상이 각 국가별, 그리고 연령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집설계를 하였으며, 국가별 각 연령대의 인원이 최소 60명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1차 조사 후 부족한 연구대상의 수는 2차 조사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먼저 한국의 경우에는 전 연령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4년제 대학 세 곳의 대학생들에게 추석 연휴 동안 고향에서 만날 수 있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부탁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1차에서 부족한 부수들은 추가적으로 2차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조사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총 수거된 부수는 401부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한 357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 중국의 1차 조사는 북경과 길림성에 위치한 B대학교와 D대학의 재학생들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고, 다른 연령별 자료는 본 연구자와 같은 대학원에 수학하는 중국 학생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여러 지방(상해, 복주, 훈춘, 연길, 연변, 장춘 등)에서 본인 스스로 또는 본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수거된 부수는 566부였으며, 번역 후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을 제거한 후 실제 분석에 사용할 대상은 430명이었다.

일본 자료의 경우 일본 동경에 있는 H대학의 교수의 심리학개론을 듣는 일본학생들이 방학기간을 통해 고향을 방문할 때 그의 가족에게서 설문지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413부를 수거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한 40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

국가	성별	연령대_50대까지분류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한국	남	27	33	26	24	32	142
	여	60	35	35	50	35	215
	전체	87	68	61	74	67	357
중국	남	20	24	11	31	28	114
	여	75	118	48	39	36	316
	전체	95	142	59	70	64	430
일본	남	22	61	42	28	39	192
	여	42	58	27	41	49	217
	전체	64	119	69	69	88	409

2. 연구도구

창의적·비창의적 성향에 관한 한국, 중국, 일본의 암묵적 이론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최인수, 윤지윤(2013)이 Gough(1979)의 ACL-CPS를 번안하여 만든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중국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한국어용 설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중국어 전문 번역가를 통하여 중국어로 번역한 후 중문학과 교수에게 내용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중국어용 설문지를 전문 번역가를 통하여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고, 처음 한국어 설문지를 작성 하였던 연구원들에게 내용의 일관성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본의 경우도 중국어판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작성되었다.

ACL-CPS는 18개의 창의적 성향문항과 12개의 비창의적 성향문항으로 구성된 이분형 자기보고식 척도다. 창의적 성향문항과 비창의적 성향문항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Gough, 1979). 본 연구에서는 이분형 척도도 사용가능한 Cronbach의 α 로 신뢰도를 추정하였고 창의적 성향과 비창의적 성향에 관한 신뢰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창의적 성향요인 신뢰도는 .649이고 비창의적 성향요인은 .552였다. 전체 신뢰도는 .657였다. 중국에서의 창의적 성향요인 신뢰도는 .763이고 비창의적 성향요인은 .456이며 전체 신뢰도는 .776이었다. 일본에서는 창의적 성향요인 신뢰도는 .710이고 비창의적 성향요인 신뢰도는 .662이며 전체 신뢰도는 .745였다. 전체신뢰도와 요인별 신뢰도는 전체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비창의적성향의 신뢰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였다.

<표 2> ACL-CPS 문항

창의적 성향문항	비창의적 성향문항
유능한(capable)	가식적인(affected)
영리한(clever)	매사에 조심스러운(cautious)
확신에 찬(confident)	평범한(commonplace)
자화자찬의(egotistical)	보수적인(conservative)
유머감각이 있는(humorous)	관습적인(conventional)
개인주의적인(individualistic)	불만에 찬(dissatisfied)
격식을 차리지 않는(informal)	정직한(honest)
통찰력이 있는(insightful)	관심의 폭이 좁은(interests narrow)
지적인(intelligent)	예의바른(mannerly)
관심이 다양한(interests wide)	진실한(sincere)
발명의 재능이 있는(inventive)	순종하는(submissive)
독창적인(original)	의심이 많은(suspicious)
심사숙고하는(reflective)	
기지가 있는(resourceful)	
자신감이 넘치는(self-confident)	
매력적인(sexy)	
속물의(snobbish)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unconventional)	

주. 괄호 안은 Gough의 ACL-CPS의 영어문항

3. 분석방법

먼저, 미국의 ACL-CPS의 2요인 (창의/비창의요인)요인구조가 한국, 중국, 일본에서도 적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ACL-CPS의 외적 타당도를 보았다. 이를 위해서 2요인을 기본모델로 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국, 중국, 일본의 자료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하여는 이분형 문항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프로그램인 Mplus7.0을 사용하였다(Muthén, Muthén, 2001).

요인구조를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절차로 한국, 중국, 일본의 창의적 성향과 비창의적 성향에 관한 암묵적 이론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 모집단비율에 대한 가설검정(양측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검정은 모집단 비율(p_0)의 특정 값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 비율이 .5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즉 여기서 영가설(H_0)은 “그 문항을 선택할 비율이

.5"이다. 그 이유는 어떤 문항이 창의적일지 아닐지를 선택하는 것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지 즉 무선 적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남천현, 김환중, 2009). 그리고 이전 연구에서도 비율을 .5로 정한 바 있다(Runco, Johnson, Bear, 1993). 검정을 위해서는 모집단 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여 그 표본의 비율(\hat{p}), 즉 통계 값을 가설에서 주장하는 모수치와 비교 하여 검정한다. 이 검정은 이분형 척도의 특성을 가진 자료에 적절한 기법이기 는 하지만 표본의 수가 많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이훈영, 2004). 이 검정을 위한 검정통계량은 t값이기 때문에 표본의 수가 많아야 t분포가 z분포와 같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각 국가별 약 320명 이상의 표본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검정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검정에서 사용되는 검정 통계량인 t값을 구하는 공식은 <그림1>과 같다.

$$T = \frac{\hat{p} - p_0}{\sqrt{p_0(1-p_0)/n}} \sim N(0,1)$$

[그림 1] 검정통계량을 구하는 공식

이 검정방법을 사용하여 얻게 되는 부수적인 장점은 검정 통계량 t값이 정적이면 창의적 성 향, 부적이면 비창의적인 성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IV. 연구결과

1. 미국의 ACL-CPS 2요인구조의 한국, 중국, 일본에서의 적용가능성 분석

ACL-CPS 2요인구조의 한, 중, 일에서의 확인가능성, 즉 외적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중다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살펴본 결과 1.0에 근접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문항을 제외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요인분석을 위해 표본의 상관행렬을 판단하는 Kaiser-Meyer-Olkin(KMO)를 실시한 결과 각 국가의 KMO값이 .60에서 .70이기 때문에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Kaiser, 1974).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3>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지수 중 하나인 χ^2 은 이분형 문항에서는 과대평가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Muthén, Muthén, 2001). 관례 적으로 정적 합치도인 CFI와 TLI는 보통 .90 이상일 때(Vandenberg, 2002), 부적 합치도인 RMSEA는 .08이하일 때 적절하다고 본다. 합치도를 종합해 볼 때 ACL-CPS의 모형은 3국 모두 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각 국가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Mplus 7.0)

국가	RMSEA	CFI	TLI
한국	.084	.509	.473
중국	.094	.656	.632
일본	.082	.756	.783

2. 한국, 중국, 일본에서의 창의적·비창의적 성향에 관한 암묵적 이론문항 탐색

각 국가에서의 창의적 성향과 비창의적 성향에 관한 암묵적 이론을 탐색하기 위하여 단일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가설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4>, <표5>, <표6>에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ACL-CPS의 창의적 성향문항에 속해 있는 것 중에 한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창의적 특성으로 지각된 문항들은 ‘확신에 찬’, ‘통찰력이 있는’, ‘관심이 다양한’, ‘발명의 재능이 있는’, ‘독창적인’, ‘자신감이 넘치는’,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이었다. 무응답의 비율이 50%보다 높아 비창의적 성향으로 지각되고 있는 문항들은 ‘유능한’, ‘자화자찬의’, ‘유머감각이 있는’, ‘개인주의적인’, ‘격식을 차리지 않는’, ‘지적인’, ‘가식적인’, ‘매사에 조심스러운’, ‘평범한’, ‘보수적인’, ‘관습적인’, ‘불만에 찬’, ‘심사숙고하는’, ‘매력적인’, ‘속물의’, ‘정직한’, ‘관심의 폭이 좁은’, ‘예의바른’, ‘진실한’, ‘순종하는’, ‘의심이 많은’이었다(표 4에 제시).

중국인들이 암묵적으로 창의적 특성이라고 인식하는 문항들은 ‘유능한’, ‘영리한’, ‘확신에 찬’, ‘통찰력이 있는’, ‘지적인’, ‘관심이’, ‘다양한’, ‘발명의 재능이 있는’, ‘독창적인’, ‘기지가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이었다. 비창의적으로 인식하는 문항들은 ‘자화자찬의’, ‘유머감각이 있는’, ‘개인주의적인’, ‘격식을 차리지 않는’, ‘가식적인’, ‘매사에 조심스러운’, ‘평범한’, ‘보수적인’, ‘관습적인’, ‘불만에 찬’, ‘심사숙고하는’, ‘매력적인’, ‘속물의’, ‘정직한’, ‘관심의 폭이 좁은’, ‘예의바른’, ‘순종하는’이었다(표 5에 제시).

일본인들이 암묵적으로 창의적 특성이라고 인식하는 문항들은 ‘유능한’, ‘영리한’, ‘유머감각이 있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 ‘통찰력이 있는’, ‘관심이 다양한’, ‘발명의 재능이 있는’, ‘독창적인’,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이었다. 비창의적이라고 인식하는 문항들은 ‘확신에 찬’, ‘자화자찬의’, ‘개인주의적인’, ‘가식적인’, ‘매사에 조심스러운’, ‘평범한’, ‘관습적인’, ‘불만에 찬’, ‘심사숙고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매력적인’, ‘속물의’, ‘정직한’, ‘관심의 폭이 좁은’, ‘예의바른’, ‘진실한’, ‘순종하는’, ‘의심이 많은’이었다(표 6에 제시).

본래 Gough(1979)의 ACL-CPS문항과 한국, 중국, 일본에서 탐색된 창의적·비창의적 성향에 관한 암묵적 이론문항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래 ACL-CPS의 비창의적 성향문항 중

‘진실한’, ‘의심이 많은’을 제외하고는 각 삼국에서도 동일하게 비창의적 성향에 관한 문항으로 탐색되었다. 반면에 ACL-CPS의 창의적 성향문항 중 각 나라에서 비창의적 성향으로 탐색된 항목적 이론문항은 한국의 경우 ‘유능한’, ‘자화자찬의’, ‘유머감각이 있는’, ‘개인주의’, ‘격식을 차리지 않는’, ‘지적인’, ‘심사숙고하는’, ‘매력적인’, ‘속물의’와 같이 각 표에 진한 글씨로 표현하였다.

응답의 비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문항들 즉 창의적 성향과 비창의적 성향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문항들은 한국에서는 ‘영리한’, ‘기지가 있는’이었고, 중국에서는 ‘인습에 얽매이지 않은’, ‘진실한’, ‘의심이 많은’이고, 일본에서는 ‘지적인’, ‘기지가 있는’이 있었다.

<표 4> 한국에서 단일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번호	문항내용	응답		합계	t
		빈도	무응답 빈도		
1	유능한(I)	154	203	357	-2.59**
2	영리한(I)	182	175	357	0.37
3	확신에 찬(I)	205	152	357	2.81**
4	자화자찬의(I)	34	323	357	-15.3***
5	유머감각이있는(I)	152	205	357	-2.81**
6	개인주의적인(I)	44	313	357	-14.24***
7	격식을차리지않는(I)	151	206	357	-2.91**
8	통찰력이있는(I)	256	101	357	8.2***
9	지적인(I)	114	243	357	-6.83***
10	가식적인(C)	6	351	357	-18.26***
11	매사에조심스러운(C)	18	339	357	-16.99***
12	평범한(C)	28	329	357	-15.93***
13	보수적인(C)	10	347	357	-17.84***
14	관습적인(C)	10	347	357	-17.84***
15	불만에찬(C)	17	340	357	-17.09***
16	관심이 다양한(I)	296	61	357	12.44***
17	발명의재능이있는(I)	215	142	357	3.86***
18	독창적인(I)	321	36	357	15.08***
19	심사숙고하는(I)	100	257	357	-8.31***
20	기지가있는(I)	178	179	357	-0.05
21	자신감이 넘치는(I)	224	133	357	4.82***
22	매력적인(I)	125	232	357	-5.66***
23	속물의(I)	9	348	357	-17.94***
24	인습에얽매이지않는(I)	242	115	357	6.72***
25	정직한(C)	80	277	357	-10.43***
26	관심의폭이좁은(C)	18	339	357	-16.99***
27	예의바른(C)	45	312	357	-14.13***
28	진실한(C)	92	265	357	-9.16***
29	순종하는(C)	13	344	357	-17.52***
30	의심이많은(C)	89	268	357	-9.47***

* $p < .05$ ** $p < .01$, *** $p < .001$

• 진하게 표시된 문항은 미국의 분류와 다르게 나온 문항을 표시함

(I)미국의 ACL-CPS의 문항 중에서 창의적 성향문항을 의미

(C)미국의 ACL-CPS의 문항 중에서 비창의적 성향문항을 의미

<표 5> 중국에서 단일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번호	문항내용	응답		합계	t
		빈도	빈도		
1	유능한(I)	321	109	430	10.22***
2	영리한(I)	282	148	430	6.46***
3	확신에 찬(I)	328	102	430	10.9***
4	자화자찬의(I)	45	385	430	-16.4***
5	유머감각이 있는(I)	140	290	430	-7.23***
6	개인주의적인(I)	54	376	430	-15.53***
7	격식을 차리지 않는(I)	58	372	430	-15.14***
8	통찰력이 있는(I)	352	78	430	13.21***
9	지적인(I)	293	137	430	7.52***
10	가식적인(C)	14	416	430	-19.39***
11	매사에 조심스러운(C)	156	274	430	-5.69***
12	평범한(C)	9	421	430	-19.87***
13	보수적인(C)	21	409	430	-18.71***
14	관습적인(C)	8	422	430	-19.96***
15	불만에 찬(C)	51	379	430	-15.82***
16	관심이 다양한(I)	279	151	430	6.17***
17	발명의 재능이 있는(I)	258	172	430	4.15***
18	독창적인(I)	316	114	430	9.74***
19	심사숙고하는(I)	191	239	430	-2.31*
20	기지가 있는(I)	250	180	430	3.38***
21	자신감이 넘치는(I)	298	132	430	8.01***
22	매력적인(I)	143	287	430	-6.94***
23	속물의(I)	45	385	430	-16.4***
24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I)	213	217	430	-0.19
25	정직한(C)	146	284	430	-6.65***
26	관심의 폭이 좁은(C)	12	418	430	-19.58***
27	예의바른(C)	132	298	430	-8.01***
28	진실한(C)	201	229	430	-1.35
29	순종하는(C)	12	418	430	-19.58***
30	의심이 많은(C)	221	209	430	0.58

* $p < .05$ ** $p < .01$, *** $p < .001$

• 진하게 표시된 문항은 미국의 분류와 다르게 나온 문항을 표시함

(I)미국의 ACL-CPS의 문항 중에서 창의적 성향문항을 의미

(C)미국의 ACL-CPS의 문항 중에서 비창의적 성향문항을 의미

<표 6> 일본에서 단일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번호	문항내용	응답		합계	t
		빈도	빈도		
1	유능한(I)	243	166	409	3.81***
2	영리한(I)	238	171	409	3.31**
3	확신에 찬(I)	181	228	409	-2.32*
4	자화자찬의(I)	88	321	409	-11.52***
5	유머감각이 있는(I)	261	148	409	5.59***
6	개인주의적인(I)	91	318	409	-11.22***
7	격식을 차리지 않는(I)	272	137	409	6.68***
8	통찰력이 있는(I)	274	135	409	6.87***
9	지적인(I)	199	210	409	-0.54
10	가식적인(C)	17	392	409	-18.54***
11	매사에 조심스러운(C)	143	266	409	-6.08***
12	평범한(C)	32	377	409	-17.06***
13	보수적인(C)	16	393	409	-18.64***
14	관습적인(C)	21	388	409	-18.15***
15	불만에 찬(C)	100	309	409	-10.33***
16	관심이 다양한(I)	308	101	409	10.24***
17	발명의 재능이 있는(I)	242	167	409	3.71***
18	독창적인(I)	343	66	409	13.7***
19	심사숙고하는(I)	141	268	409	-6.28***
20	기지가 있는(I)	205	204	409	0.05
21	자신감이 넘치는(I)	185	224	409	-1.93*
22	매력적인(I)	47	362	409	-15.58***
23	속물의(I)	23	386	409	-17.95***
24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I)	286	123	409	8.06***
25	정직한(C)	172	237	409	-3.21**
26	관심의 폭이 좁은(C)	25	384	409	-17.75***
27	예의바른(C)	87	322	409	-11.62***
28	진실한(C)	133	276	409	-7.07***
29	순종하는(C)	23	386	409	-17.95***
30	의심이 많은(C)	100	309	409	-10.33***

* $p < .05$ ** $p < .01$, *** $p < .001$

• 진하게 표시된 문항은 미국의 분류와 다르게 나온 문항을 표시함

(I)미국의 ACL-CPS의 문항 중에서 창의적 성향문항을 의미

(C)미국의 ACL-CPS의 문항 중에서 비창의적 성향문항을 의미

<표 7> Gough의 ACL-CPS문항과 한국, 중국, 일본에서 탐색된 창의적·비창의적 성향의 암묵적 이론문항비교 결과

번호	문항내용	미국	한국	중국	일본
1	유능한(I)	창의적	비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2	영리한(I)	창의적	-	창의적	창의적
3	확신에 찬(I)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비창의적
4	자화자찬의(I)	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5	유머감각이 있는(I)	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창의적
6	개인주의적인(I)	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7	격식을 차리지 않는(I)	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창의적
8	통찰력이 있는(I)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9	지적인(I)	창의적	비창의적	창의적	-
10	가식적인(C)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11	매사에 조심스러운(C)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12	평범한(C)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13	보수적인(C)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14	관습적인(C)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15	불만에 찬(C)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16	관심이 다양한(I)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17	발명의 재능이 있는(I)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18	독창적인(I)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19	심사숙고하는(I)	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20	기지가 있는(I)	창의적	-	창의적	-
21	자신감이 넘치는(I)	창의적	창의적	창의적	비창의적
22	매력적인(I)	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23	속물의(I)	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24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I)	창의적	창의적	-	창의적
25	정직한(C)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26	관심의 폭이 좁은(C)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27	예의바른(C)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28	진실한(C)	비창의적	비창의적	-	비창의적
29	순종하는(C)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비창의적
30	의심이 많은(C)	비창의적	비창의적	-	비창의적

단일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검정 결과에서 .05와 차이가 없는 문항을 의미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암묵적 이론을 통해서, ACL-CPS의 외적 타당도와, 창의적·비창의적 성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암묵적 이론을 통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외적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Gough(1979)의 ACL-CPS의 2요인 구조는 세 국가에서 적합하지 않았다. 이미 한국에서 ACL-CPS의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이정은, 2000; 정은이, 2002b)에서 요인분석결과나 신뢰도검증을 통해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이 각각 7개, 9개가 되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2요인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ACL-CPS의 요인구조를 그대로 사용한 다른 연구결과들의 외적타당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이덕로, 김태열, 2009).

ACL-CPS 요인구조는 중국에서도 타당하지 않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Quian, Plucker, Shen(2010)도 중국의 성인의 창의적 성향 모형을 만들 때에, ACL-CPS는 적합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다. 탕문문(2011)의 연구에서도 중국의 창의성 척도와 Gough(1979)의 ACL-CPS의 상관은 좋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는바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도 ACL-CPS의 2요인모델은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일본에서는 Ohkawa와 Watanabe(1990)가 Gough와 Hailbrun(1965)의 ACL을 이용하여 창의적 성향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에 있는 ‘수용성(receptive)’ 하위요인에는 ‘풍부한 애정’, ‘동정심이 있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연구자들도 ACL-CPS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암묵적 이론연구방법을 통해서, ACL-CPS의 외적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각 국가에서 ACL-CP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당화과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더 나아가서는 일본과 같이 문화를 고려하여 ACL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해준다.

한·중·일의 암묵적 이론문항과 본래의 ACL-CPS의 창의적·비창의적 성향문항들을 비교하여 얻은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원래의 ACL-CPS의 창의적 성향문항 중에서 한·중·일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는 문항들은 ‘통찰력이 있는’, ‘관심이 다양한’, ‘발명의 재능이 있는’, ‘독창적인’이었다. 이는 이전 연구들과도 유사한데(성은현 외, 2007; Ohkawa, Watanabe, 1990; Rudowicz, Yue, 2002) 이 네 개의 문항들은 세 개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창의적 성향척도에 모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박병기, 강현숙, 2006; 탕문문, 2011; Ohkawa, Watanabe, 1990).

그러나 ACL-CPS에 포함되어 있는 창의적 성향문항들 중에서 한·중·일 삼국 모두에서 비

창의적 성향으로 지각된 문항을 보면 '자화자찬의'와 '속물의' '개인주의', '심사숙고', '매력적인' 문항이었다.

미국에서 창의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던 특성들이 한·중·일 삼국에서 비창의적 특성으로 지각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함의하는데, 바로 창의성의 개념에 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본 논문에서 찾아진 사실 중 가장 의미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한·중·일에서 '자화자찬'이나 '속물적인'이 비창의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각된 것은 흥미로운 결과인데,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겸손이 갖는 사회심리학적 의미를 고려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최상진, 김은미, 2000).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와 같은 속담이 있듯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람에게는 겸손은 갖춰야할 필수 덕목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시대적 요구(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를 생각하면 자화자찬은 그리 바람직한 특성으로 간주되지 않는 듯 보인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겸손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유교문화권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화자찬'이나 '속물적인'이 비창의적 성향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에서 동일하게 비창의적 성향으로 탐색된 문항 중 하나가 '개인주의'였다. 한국, 중국, 일본은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문항을 비창의적 성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하주현 외, 2008; Rudowicz & Yue, 2002). 또한 성은현 외(2007)의 연구에서도 '개인주의'는 창의성을 방해하는 성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비창의적 성향으로 인식하는 다른 하나는 '심사숙고 하는'이다. 창의적인 사람은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풀어볼 수 있는데, 이는 창의적 사고에 관한 신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일반인은 창의적 인물의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에서 "유레카!"와 같이 순간적인 통찰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임웅, 2009) 이러한 오해는 뉴턴의 사과나무일화,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일화가 일반인에게 크게 작용하여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문제해결을 위한 수많은 고민의 시간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생성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최인수, 2011). 이러한 인식은 교육에 관해 시사 하는 바가 큰데 창의적 사고 과정이 심사숙고의 과정이 아니라 순간적인 통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창의성이란 신비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임웅, 2009). 하지만, 창의성의 발현이 신비한 통찰이나 직관이 아니라 오랜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면 소수의 선택되어진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닌 학생 본인도 노력에 의해서 창의성의 증가와 창의적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동기부여와 신념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Dweck의 지능의 실체이론(entity theory)과 증가이론(incremental theory)을 접목시켜 학생의 창의성에 관한 신념이 창의적 성향에는 직접적, 창의적 능력에는 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최근의 연

구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박상범, 박병기, 2010).

한·중·일 삼국에서 창의적·비창의적 성향문항을 비교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함의한다. 이는 삼국이 같은 문화권으로 인식되지만, 그 안에서도 각 문화가 인식하는 창의적·비창의적 성향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유능한(capable)’과 ‘지적인(intelligent)’문항은 창의성과 관련 없는 성향으로 지적되었다. Choe(2006)의 연구에서도 ‘똑똑한(smart)’은 창의적 인물의 성향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중국, 일본과는 다른 결과였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유능한’이 창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탐색이 되었다. 이전 연구에서도 중국과 일본에서는 창의적 인물의 성향에 지적인 능력이 포함되었다(Ohkawa & Watanabe, 1990; Rudowicz & Yue, 2002). 본 연구에서 중국의 경우 지적인 문항(유능한(capable), 영리한(clever), 지적인(intelligent)) 모두가 창의적 성향으로 인식되었다. 일본에 경우에는 창의적 성향의 문항들 중에 ‘똑똑한(聡明な)’과 ‘머리 회전이 빠른(頭の回転が速い)’이라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Sternberg(1985)는 미국인은 창의성과 지능을 서로 다른 특성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Lim, Plucker(2001)와 Lim, Plucker, Im(2002)의 연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인지적인 능력을 중요시 여기며, 창의성과 지능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와 Lim의 2001년과 2002년 연구결과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Lim의 연구는 10년 이상 시간이 경과된 연구이고, 본격적인 창의성 교육이 2000년도에 시작된 제 7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시행된 것을 고려하면,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지난 10여 년간 변한 것이 아닐까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창의성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확신에 찬’, ‘자신감이 넘치는’문항은 일본에서만 비창의적 성향으로 탐색되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창의적 인물의 성향으로 ‘소심한’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Ohkawa, Watanabe, 1990)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한·중·일 삼국에서 ‘예의바른’, ‘정직한’, ‘진실한’과 같이 인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문용린, 최인수, 2010)는 비창의적 성향이였다. 최인수(2011)는 불순한 창의성(malevolent creativity)과 그늘진 창의성(dark side of creativity)을 이야기하면서 인성과 창의성이 공존하는 것이 미래에 있어서는 필수사항이라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이 창의성과 인성의 공통점을 찾아 함께 교육해야 한다는 창의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해 준다.

요약하자면 한·중·일 삼국은 창의적·비창의적 성향에 관하여 미국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일 삼국에서 창의성에 관한 연구를 할 때, 미국의 이론이나 척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해준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ACL-CPS를 수정보완 한다면, 우리 문화에 적합한 척도가 개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척도는 창의적 인재를 선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창의, 영재교육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체 모집단의 비율을 고려한 확률적 표집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추후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인구비례를 감안한 표본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ACL-CPS의 외적타당도를 보기 위해서 ACL-CPS의 본래 척도인 이분형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태도나 인식에 대한 계량적인 정보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다분형 문항이 더 적합하기에(송미영, 1994) 추후 연구에서는 다분형 문항을 통한 심도있는 분석을 할 필요가 제기된다.

참고문헌

- 권준모 (2003). 지능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성취동기. **교육심리연구**, 17(1), 95-107.
- 김민희 (2010). 지혜 암묵이론의 성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975-997.
- 김영석 (1999). **사회조사방법론: SPSS WIN 통계분석**. 서울: 나남출판.
- 김영우 (2009). 예술적 및 과학적 창의성 측정 도구의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혜숙 (1999). 창의성 진단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3(4), 269-303.
- 남천현, 김환중 (2009). **Excel을 이용한 기초통계학**. 서울: 신영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보도참고자료2, 1-222.
- 문용린, 최인수 (2010). 창의인성교육의 총론. **인한대학교 교육연구소 심포지움**, 10, 21-29.
- 박병기, 강현숙 (2006). 자기보고형 통합 창의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0(1), 155-177.
- 박상범, 박병기 (2010). 주관적 안녕에 대한 통합창의성, 신념, 동기, 학습의 인과구조 탐색: 창의성 과정과 Dweck 모형의 결합. **교육심리연구**, 24(3), 633-660.
- 성은현, 류형선, 하주현, 이정규, 한순미, 한윤영 (2007). 한국 대학생이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의 암묵적 창의성에 대한 비교 연구. **영재교육연구**, 17(2), 365-391.
- 성은현, 한순미, 하주현, 이정규, 류형선, 한윤영, 박병기 (2008). 한국적 창의성과 창의적 환경에 대한 대학생들의 암묵적 이론.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4(1), 367-390.
- 성은현, 한윤영 (2011).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창의성 발현 및 저해 요인에 관한 암묵적 생각. **교육심리연구**, 25(4), 927-944.
- 송미영 (1994). 이분반응모형과 등급반응모형에 의한 문항특성과 피험자 능력 모수추정의 정확성. **교육평가연구**, 7(2), 241-261.
- 유경훈 (2009). 내·외재동기, 자기결정성 동기가 창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9(2), 69-88.
- 이덕로, 김태열 (2009). 개인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창의적 성격, 기술다양성 및 팀 특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16(3), 167-192.
- 이정은 (2000). 암묵적 접근 방법에 의한 창의성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훈영 (2004). **이훈영교수의 통계학**. 서울:청람.
- 임웅 (2009). 통찰! 지각인가 혹은 지식인가?: 인지의 하향처리과정으로서의 통찰. **영재와 영재**

교육, 8(3), 89-108.

- 정은이 (2002a). 일상적-전문적 창의성의 암묵 이론적 구조. **교육심리연구, 16(4), 147-167.**
- 정은이 (2002b). 일상적 창의성과 개별성-관계성 및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최공필 (2013). 금주의 논단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신(新) 금융패러다임. **주간 금융 브리프, 22(14), 3-13.**
- 최상진, 김은미 (2000). 규범화된 겸손 언행의 사회-문화심리적 기능분석. **사회과학연구, 13, 75-91.**
- 최인수. (1998a). 창의적 성취와 관련된 제 요인들: 창의적 연구의 최근 모델인 체계모델 (Systems Model)을 중심으로.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5(2), 133-166.**
- 최인수(1998b).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질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25-47.**
- 최인수 (2000). 유아용 창의성 측정도구에 관한 고찰. **유아교육연구, 20(2), 139-166.**
- 최인수 (2011). **창의성의 발견**. 서울: (주)쌤앤파커스.
- 최인수 이현주, 이화선 (2005). 아동의 창의성과 성격 및 지능간의 관계: 창의성검사, Holland검사, Raven검사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9(1), 135-157.**
- 최인수, 임미정, 표정민. (2011). 한국중국일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지식 비교-복합성을 중심으로-. **창의력교육연구, 11(2), 27-47.**
- 최인수, 윤지윤 (2013). 한국, 중국, 일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지식 비교 연구: 창의적인 인물의 직업군과 지각된 창의적 성향을 중심으로. **창의력교육연구, 13(2), 159-183.**
- 탕문문 (2011). 중국 직장인의 창의성 요인구조 탐색과 창의성.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 하주현, 성은현, 한순미 (2008). 창의적 인성 체크리스트 개발 및 한국대학생과 미국대학생이 생각하는 창의적 인성 비교. **교육심리연구, 22(1), 169-191.**
- 홍성열 (2004). **(사회과학도를 위한) 기초통계 : Windows용 SPSS**. 서울: 학지사
- Amaile, T. M. (1994). *The personality of creativity*. In Joyce, M., Isaksen, S., Puccio, G., Davidson, F. & Coppage, C.(Eds.), *An Introduction to creativity, (71-75)*. Acton, Massachusetts : Copley Publishing Co.
- Barron, F. 1963. *The disposition toward originality. Scientific creativity*. (Ed). C. W. Taylor. And F. Barron, New York: Wiley.
- Bergs, C. A., & Sternberg, R. J. (1992). A triarchic theory of intellectual development during adulthood. *Developmental Review, 5(4), 334-370.*
- Block, J. (1961). *The Q-sort method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psychiatric research* Springfield, Ill.: Charles C thomas.
- Choe, In-Soo (2006). *Creativity-A Sudden Rising Star in Korea*. In James C. Kaufman & Robert

- J. Sternberg (Ed.),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Creativity*.
- Cronbach, L. J. (1955). Processes affecting scores on "understanding of others" and "assuming similarity". *Psychological Bulletin*, 52, 177-193.
- Csikszentmihalyi, M. (1988). *Society, culture, and person: A systems view of creativity*. In R.J. Sternberg (ed.), *The nature of creativity* (pp. 325-339).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Collins.
- Csikszentmihalyi, M. (1996).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Collins.
- Csikszentmihalyi, M. (1999). Implications of a systems perspectives for the study of creativity. In Sternberg, R. J. (Ed.),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s, G. A. (1998). *Creativity is forever* (4th Ed.). Iowa: Kendall/Hunt.
- Domino, G. (1970). Identification of potentially creative persons from the adjective check lis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1), 48-51.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Gough, H. G. (1979). A creative personality scale for the adjective check li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8), 1398-1405.
- Gough, H. G., & Heilbrun, A. B. (1965). *The Adjective Check List manual*.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Hofstede, G. H.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Leung, K., Au, A., & Leung, W., C. (2004). Creativity and Innovation: East-West Comparisons with an Emphasis on Chinese Societies. In Lau, Sing(Ed.), *Creativity: When East Meets West*. River Edge, NJ, USA: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113-135.
- Lim. W. & Plucker J. A. (2001). Creativity Through a Lens of Social Responsibility: Implicit Theories of Creativity with Korean Samples. *Creative Education Foundation*, 35(2).
- Lim. W. & Plucker J. A., & Im, K. H. (2002). We are more alike than we think we are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with a Korean sample. *Intelligence*, 30, 185-208.
- Mackinnon, D. W. (1961). *Educating for creativity: A modern myth?* (Ed) Heist. P., Berkeley, Ca: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uthén, B. O., & Muthén, L. K. (2001). *Mplus: Statistical analysis with latent variables*[Computer program and manual]. Los Angeles: Statmodel.
- Newcomb, T., M. (1953). An approach to the study of communicative acts. *Psychological Review*, 60, 393-404.
- Nonaka, I. (1994). A dynamic theory of organizational knowledge creation. *Organization Science* 5(1), 14-37.
- Paletz, S. B. F. & Peng, K. (2008). Implicit Theories of Creativity Across Cultures Novelty and Appropriateness in Two Product Domai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9(3), 286-302.
- Passini, R. T. & Norman, W. T. (1966). A universal concep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44-49.
- Puccio, G. J. & Chimento, M. D. (2001). Implicit theories of creativity: Laypersons' perceptions of the creativity of adaptors and innovator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92(3), 675-681.
- Quin, M., Plucker, J., A., & Shen, J. (2010). A model of Chinese Adolescents; Creative Personal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2(1), 62-67.
- Ohkawa, I. & Watanabe, Y. (1990). Development of a creative personality scale for the adjective check list. *Tsukuba Psychological Research*, 12, 159-167.
- Rudowicz, E. (2003). Creativity and Culture: a two way interaction.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7(3), 273-290.
- Rudowicz, E. & Hui, A. (1997). The creative personality: Hong Kong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2(1), 139-157.
- Runco, M. A. (1984). Teachers' judgments of creativity and social validation of divergent thinking tes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9, 711-717.
- Runco, M. A. (1989). Parents' and teachers' ratings of the creativity of childre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 79-83.
- Runco, M. A. (1990). Implicit theories and ideational creativity, in: M.A. Runco & R. S. Albert(Eds) *Theories of creativity*(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Runco, M. A. & Johnson, D. J. (2002). Parents' and Teachers' Implicit Theories of Children's Creativi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4 (3&4), 427-438.
- Runco, M. A., Johnson, D. J., & Bear, P. K. (1993). Parents' and teachers' implicit theories of

- children's creativity. *Child Study Journal*, 23, 91-113
- Rush, M. C., Thomas, J. C., & Lord, R. G. (1977). Implicit Leadership Theory: A Potential Threat to the Internal Validity of Leader Behavior Questionnair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0, 93-110.
- Santosa, M., C., Strong, M., C., Nowakowska, C., Wang, P., W., Rennie, M., C., Ketter, A., T. (2007). Enhanced creativity in bipolar disorder patients: A controlled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0, 31-39.
- Schaefer, C. E. (1973). Follow-up study of the self-concept of creative adolescent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3, 163-170
- Schneider, D. J. (1973). Implicit personality theor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9, 294-309.
- Simonton, D. K. (1988). *Creativity, leadership, and chance*. In R. J. Sternberg, (Ed), *The nature of creativ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1985).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creativity, and wisdo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9(3), 607-627.
- Vendenberg, R. J. (2002). Toward a further understanding of and improvement in measurement invariance methods and procedure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5(2), 139-158.
- Weiner, R. P. (2000). *Creativity and beyond*.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Yue, X. D. (2003). Meritorious attribution bias: How Chinese undergraduates perceive Chinese and foreign creators.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7, 88-104.
- Yue, X. D. (2004). Whoever is influential is creative: How chinese undergraduates choose creative people in Chinese societies, *Psychological Reports*, 94, 1235-1249.
- Yue, X. D. & Rudowicz, E. (2002). Perception of the most creative Chinese by undergraduates in Beijing, Guangzhou, Hong Kong and Taipei.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6, 88-104.
- Yue, X. D., Bender, M., & Cheung, C. (2011). Who are the best-known national and foreign creators. *Journal of Creative Behaviors*, 45(1), 23-37.

* 논문접수 2013년 8월 2일 / 1차 심사 2013년 9월 5일 / 게재승인 2013년 9월 22일

* 최인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Univ. of Chicago에서 심리학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및 인재개발학과 교수, 다산창의성센터 소장, 긍정심리학회 부회장으로 있다. 창의성, 영재성, 몰입(플로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창의성의 발견'이 역서로는 '플로우'가 있다.

* E-mail: flow@skku.edu

* 전요한: 중앙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인재심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E-mail: creativitylex@gmail.com

* 표정민: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동대학교 대학원 인재개발학과 박사과정 중이다.

* E-mail: mini0441@naver.com

Abstract

A Study on Korean, Chinese, Japanese ' Implicit Theories of Indicative and Contraindicative Personality -By using Adjective Check List-Creative Personality Scale(ACL-CPS)-

Choe, In Soo*
Jeon, Yoo Han**
Pyo, Jung Min***

The goals of the study were, first, to validate ACL-CPS ecologically; second, to explore indicative and contraindicative items based on implicit knowledge of lay people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CL-CPS was not validated ecologically by using the method of implicit theories. Secondly, the Koreans, the Japanese, and Chinese considered 'egotistical', 'individualistic', 'reflective', 'sexy', 'snobbish' as non-creative personality. However, people of three countries recognized all of the original contraindicative items as non-creative personality traits as the counterpart of American did. The Korean people considered intellectual items as non-creative personality, whereas the Chinese considered all of intellectual items as creative personality. The Japanese recognized 'humorous' and 'informal' as creative personality.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ly, we need to consider ecological validity of test items developed by foreign countries. Secondly, Korea, Japan and China which had been considered to have common cultural heritage from Western scholars did have culturally diverse implicit knowledge on creativity, which strengthen the argument that concept of creativity is constructed based on its own culture.

Key words: creative personality, non-creative personality, implicit theories, cross-culture study, ACL-CPS

*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 Sungkyunkwan University

*** Sungkyunkwan University